

시론



강 동 완

조선대학교 명예교수
(사)생명존중 뇌건강치과 AI연구소 대표

한 해를 매듭짓는 12월이다. 연일 쏟아지는 뉴스는 이념 간의 갈등과 경제적 불안, 그리고 혐오의 언어들로 가득하다. 그러나 거리마다 커진 성탄의 별빛을 마주할 때면, 우리 뇌의 편도체는 본능적으로 차가운 현실 대신 온기를 갈구하고, 전두엽은 소중한 이에게 건넨 ‘선물’을 고민하게 된다.

지난 11월, 광주예술의전당에서 사)그라시아스 합창단이 공연한 오 헨리(1862-1910)의 〈크리스마스 선물〉 뮤지컬 속 짐과 델라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떠오른다.

가난한 집은 아내의 탐스러운 머리카락을 위해 시계를 팔아 빚을 샀고, 델라는 남편의 시계를 위해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시계줄을 샀다. 빚질할 머리카락도, 줄을 매달 시계도 사라졌기에 그들의 선물은 무용지물이 된 듯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 자신의 뇌 회로를 재구성한 고도의 ‘사랑의 연금술’이었다.

필자는 지난 5월부터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을 1천원 밥상으로 실천하는 (사)맑고 향기롭게* 광주전남지부 어머니 한글교실에서 이 시대의 진정한 연금술사들을 만나고 있다. 바로 여든이 넘은 연세에 한글을 배우시는 할머니들이다. 일주일에 두 번, 굵은 허리와 침침한 눈을 비비며 글을 익히는 풍경은 경이

신개념 뇌건강 치과학 XXI

- 사랑은 존재를 꽃피우는 연금술(2) 한글교실

롭기 그지없다. 한글은 어금니(ㄱ), 혀(ㄴ), 입술(ㅁ), 치아(ㅅ), 목구멍(ㅇ)의 모양을 본뜬 초성 5음을 기본으로 한 자음과, 천지인(天地人)의 철학이 담긴 모음이 결합해 완성된다. 할머니들이 입을 열어 글자를 발음할 때마다 구강의 구조와 우주의 섭리가 공명한다.

나이가 들어 새로운 언어 체계를 습득하고 손 근육의 미세 조절 능력을 훈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노화된 뇌 세포를 깨우는 인내로 할머니들은 ‘편안함’과 ‘익숙함’이라는 머리카락을 과감히 잘라 내었다. 글을 읽을 수 없었던 답답함을 딛고,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들에게 마음을 글로 표현하고 싶은 간절한 열망 때문이다.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춤추는 별 하나를 탄생시키기 위해 사랑은 자신 속에 혼돈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글자를 모른 채 살아온 할머니들의 지난 삶은 거대한 ‘혼돈(Chaos)’ 그 자체였으리라. 그러나 그들은 혼돈을 극복하려는 열망을 불태워 마침내 한글이라는 ‘춤추는 별’을 쏘아 올린 것이다.

한글을 가르치면서 이육사(청포도), 윤동주(서시), 정현종(방문객), 도종환(흔들리며 피는 꽃), 김춘수(꽃), 이성부(벼), 정호승(수선화에게), 마중구(우화의 강), 조동화(나 하나 꽃피어), 나태주(꽃말) 등 주옥같은 시들을 소개하고 함께 쓰고 읽으며 자존감을 키우도록 했다.

학습을 마무리하는 지난 주, 장시화 시인의 시 “돌아보면 모두가 사랑이더라”를 함께 낭송하고 2025년을 기억하며 감사 일기를 직접 쓰도록 했다. 지난 1년 중 고마운 일을 기억하며 문장으로 완성해 가는 순간, 그 종이

한 장은 짐의 시계줄보다, 델라의 머리빗보다 더 값진 보석이 됐다. 그 찰나, 할머니의 뇌에서는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폭죽처럼 터지며 노화를 극복할 새로운 신경 회로가 구축됐을 것이다. 이를 ‘신개념 뇌건강 치과학’에서는 ‘존재의학’이라 부른다.

구강악안면에서 일어나는 씹고, 삼키고, 호흡하는 생존 활동과 말하고, 노래하고, 웃으며 사랑을 표현하는 감성 활동이 뇌 건강을 자극하듯, 배움과 사랑은 영혼에 혈류를 공급해 존재를 각성시킨다.

80세 할머니가 한글을 배우며 뇌 속의 혼돈을 극복하고 창조의 별을 잉태하는 과정은, 니체가 말한 낙타의 인내와 사자의 포효를 거쳐 마침내 아이처럼 자유롭게 창조하는 삶의 단면을 보여준다.

갈등과 혐오가 난무하는 사회 이슈 속에서도 사랑으로 존재를 꽃피우는 드라마가 곳곳에서 피어나기에, 삶 속에서 희망을 품는다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력이 된다.

12월, 소원도에 전열된 화려한 상품보다 더 값진 선물은 무엇일까? 짐과 델라처럼, 그리고 한글 교실의 할머니들처럼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자신과 타인의 영혼을 이루만지는 것이 아닐까?

신개념 뇌건강 치의학의 본질은 서로를 아끼는 마음과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 그리고 고단한 환자와 라포(Rapport, 상호신뢰와 공감)를 형성하여 서로 간의 울림을 가지려는 태도 속에 있다.

짐과 델라의 엇갈린 선물이 영원한 사랑의 징표가 되었듯, 우리가 나누는 진실한 마음의 선물은 사랑이라는 존재를 꽃피우는 가장 위대한 연금술이다.

자치칼럼



임 우 진

민선 6기 광주 서구청장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의 성공요건

아본다.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는 2014년 광주 광산구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이래 세종시 등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 61개 읍면동에서 시행됐으나 최근 세종시, 논산시, 울주군, 고성군, 제주도 등은 부정적인 이유로 폐지한 바 있다. 이제도는 주민 참여 및 만족도 증대, 소통 및 협력 증진, 행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 확보에 장점이 있는 반면 민원 부담, 업무 과중, 인사 불이익 우려 등으로 공무원 참여 저조, 법령에 근거한 ‘선출’이 아닌 단체장의 ‘임명권’ 내에서 이뤄지는 ‘추천’이라는 제도적 한계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한편 우리나라는 주민자치를 도입 육성한 지 25년이 지났으나, 전국 3천562개 읍면동 중 주민자치회 운영은 1천641곳, 읍면동장의 자문기구에 불과한 주민자치위원회가 1천655곳으로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주민자치회의 경우도 윤석열정부 3년의 말살정책으로 인해 주민자치 운영도 제각각을 면치 못하고 헤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주민자치 활성화와 위한 타개책으로 읍면동장 직선제나 읍면의 자치단체화를 제기하고 있으나 아직은 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상황이다. 새로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주민자치의 전면 실시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 처리 중에 있고, 그밖에도 여러 자치분권 강화 정책을 준비 중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선택 읍면동장제도는 일선 읍면동의 주민중심행정, 주민자치활성화, 민관협력기반의 지역문제 해결역량 강화 등 마을 혁신을 이루어 낼 수 있는 무리없는 적절한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도의 도입 운영과정의 다소의 문제들은

강력한 정책의지로 돌파해 제도화하고 주민선택 읍면동장 책임하에 집행기관과 주민대표조직인 주민자치회와의 관계를 정립해 나간다면 읍면동 주민자치 활성화와 추후 읍면 자치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주민선택 읍면동장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꼭 필요한 요건에 대해서는 먼저 민관협력 강화,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 그리고 지역밀착형 행정혁신에 그 목적을 두고 단체장의 확고한 정책의지가 뒷받침돼야 한다. 둘째, 심사와정의 공정·투명성 확보, 관 주도적 운영에 대한 불신 해소와 신뢰성 확보다. 셋째, 읍면동장과 동의 업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실시지역 주민에게도 인센티브 등이 뒤따라야 한다. 넷째, 제도의 운영절차,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인센티브 제공, 협력 갈등의 조정 등 제도운영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 규칙 등으로 제도화해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최근 ‘읍면자치 공동행동’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촌 읍·면 자치권 확보를 위한 10대 제안’을 결의했다. 이재명정부는 주민자치 전면실시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모두 주민선택 읍면동장제를 최우선적으로 요구하고 공약하고 있다. 윤석열정부 3년 동안의 주민자치, 자치분권 정책의 안개가 걷히는 것 같다. 이제 읍면동은 주민의 자치역량을 기반으로 마을 문제를 해결하고 살기좋은 공동체 만들기가 대세다. 가장 걸림돌이 됐던 단체장의 의지, 공정한 관리, 공무원들의 태도 등이 확 바뀌어야 한다. 시대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변화를 주도할 때 여유롭고 큰 보람도 얻는 법이다.

바디캠은 경찰의 ‘방패’, 국민의 ‘감시의 눈’

이 조성될 것이다. 또한, 현장의 위험 상황과 시민과의 접촉 과정을 그대로 기록함으로써 공무집행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가장 객관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이러한 바디캠은 기술적 진보를 넘어 투명한 공권력 행사와 국민 인권 보장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경찰 바디캠의 정식 도입은 경찰과 시민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로써 기록을 남기는 치안은 더 책임 있고, 더 신뢰받는 치안으로 거듭날 것이다.

〈이재복* 고흥경찰서 대서파출소장〉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국가인권위는 광주의 정상화 요구에 즉시 답해야

광주시 전·현직 상임·비상임 인권옹보즈맨들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인권위 독립성과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라는 이유를 들었다. 인권위원회법 제1조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 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인권위 안팎에서 정상화와 보장체계의 개선을 요정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인권위는 누구의 간섭이나 지휘를 받지 않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한다고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권에 편승한 편향적인 판단으로 설립 목적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 아무런 목소리는 내지 못하고 오히려 내란세력을 옹호했다. 소수자를 차별하는 모습까지 도마에 올랐었다.

안 위원장이 책무 수행에 중대한 우려를 초래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진단이 나온다. 전국공무원노조 인권위지부가 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에 따르면 직원 10명 중 7명 이상이 찬성했다. 윤석열 방어진 안전을 인용의결한 데 대해선 90% 가까이가 부적절이라고 응답했

다. 매우 이례적인 평가다. 전직 위원장들과 간부, 퇴직자들도 가세했다. 최근 2025년 세계인권선언 77주기 인권의 날 기념식에선 위원장이 인권단체들의 반발에 입장조차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국가인권위의 근본적 쇄신이 급하다. 전·현직 인권옹보즈맨들은 다시 국민의 신뢰를 받기를 바라면서 인권위의 제도적 전환과 위원장 사퇴를 제기했다.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 위에서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고 실천해 온 광주의 준엄한 요구다. 안 위원장은 무거운 책임으로 스스로 자신의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여론에 즉각 답해야 할 것이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은 시민단체 요청으로 특별심사를 실시해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 규범인 파리원칙에 맞는 효과성과 독립성을 갖추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헌정 위기,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높은 수준의 경계와 독립성을 지키며 업무 수행에 노력하라고 밝혔다. 인권위가 사회적 비판에 직면해 있다. 초심을 회복하고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는 계기를 만드는 게 안 위원장의 마지막 소임으로 보인다.

환율 충격 최소화 민생경제 안정 선제 대응 급하다

고환율 여파로 수입물가와 체감물가가 동시에 들쭉이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광주에서 판매되는 수입산 파인애플 1개 가격은 전년 대비 47.1%나 뛰었다. 바나나도 34.5% 상승했다. 전남 역시 오름세가 뚜렷하다. 환율과 연동돼 단가가 상승하고 물류비 부담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기름값 또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오피넷에 따르면 광주의 휘발유는 12월 셋째 주 4당 1천727.5원으로 재차 하락했지만 1천700원대를 이어가고 있다. 전남지역은 1천740.8원으로 전주보다 조금 내렸다. 소비자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최근 물가 동향이 심상찮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보다 2.4% 상승해 10월, 11월 연속으로 연고점을 찍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 수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2.0% 오르면서 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정부의 위기감도 팽배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 민

생 품목의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책수단을 선제적으로 동원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문제는 환율이다. 국제유가가 하락했음에도 석유류가 급등하고 있다. 국제 원자재 가격, 공급망 구조 등 외부 변수의 영향을 크게 받는 상황이다. 외환시장 안정이나 원가 부담 완화 등 근본 요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대에 근접하면서 가격이나 정점인 생활물가를 더 끌어올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플레이션 경고등이 커졌다. 매번 호텔갑판 떨어트를 뿐 구조적 한계를 노출했던 역대 정부의 전철을 답습해선 안 된다. 단일한 인식은 곤란하다. 물가가 요동치면 민생이 흔들린다. 서민의 삶이 힘들어진다. 수입산 다변화와 사전비축 등으로 가격 불안 요인을 잡는 것까지 환율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고환율 기조가 당분간 계속될 상황이다. 경제 방향을 재검토하고 위기를 헤쳐나갈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길 촉구한다.

아침물어는 詩

평형수

강경화



물살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물을 신는다
누구도 볼 수 없는 배 밑바닥 깊숙이
먼 항해 가라앉지 않게 지탱해줄 적당한 무게

흔들려도 가게 하는 보이지 않는 물
사랑 슬픔, 그리움, 혹은 후회 같은
세상은 늘 출렁이고 나는 자주 기운다

오늘을 살아가는 균형을 잡아 줄
당신이란 이름을 가슴에 채운다
기우는 나를 지탱하는 내 안의 평형수
(시조시집 ‘그늘 속 얼룩무늬’, 다인숲, 2025)

【시의 눈】

무계중심이 높아지면 배는 기울게 된다. 자꾸 기울면 전복될 위험성이 높다. 이때 평형수를 넣는다. 배의 무게가 커져 무계중심이 낮아지게 된다. 그제야 배의 균형점이 맞게 된다. 살아가는 모습은 외줄타기와 같다. 살아가는 동안 외줄에서 내려올 수 없

다. 하루하루 실연은 건듯 미끄러지지 않으려 인간됨을 다한다. 허방 던지 않으려고 바싹 물입하며 균형 잡기를 시도한다. 자칫 미끄러지면 나락으로 떨어진다. 치열한 인생이란 무대. 그것은 외줄

타기를 방불케 한다. 너른 바다를 떠가는 한척의자그만 배. 그 또한 인생을 말하고 있다. ‘사랑 슬픔, 그리움, 혹은 후회 같은/세상은 늘 출렁이고 나는 자주 기운다’의 운술에 드러난 자기 직시와 존재론적 대응은 생의 외줄 타기의 신선함이 묻어있다. 수시로 풍량이 일어 배는 흔들린다. 인생의 항해 그 또한 끊임없는 흔들림을 맞는다. 인간의 욕망이 자초한 흔들림. 눈을 낮게 두지 않고 높은 곳만 향하기 때문 이 아닐까. 외줄을 무사히 건너려거든, 삶의 항해를 무사히 마쳐려거든, 무계중심을 낮춰야 한다. 시선을 낮은 곳으로 향할 필요가 있다. 인생이란 배에 나직이 평형수를 저장해야 한다. 시인은 생의 항해 법칙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윤상현·시인〉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천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1991)·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